

서양미술사의 획기적인 그림 51점에 대한 통찰

오직, 그림
박영택 지음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만다. 작품에 담긴 의미를 열심히 탐구해야 할 것 같고, 흥미롭기는 하지만, 감동이라는 단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미디어 아트, 설치미술의 홍수 속에서 관람자들은 때론 '미야'가 돼 버렸는지 모른다.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의 '컵 속의 물과 장미' (1630년대)

작품 중 선택한 '단 한점'을 살피는 일이다. 고흐의 그림 가운데 저자가 고른 것은 '아름에서 그린 자화상' (1888)이다. 머리를 바짝 깎고 갈색의 소박한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동양의 승려를 연상시키는데, 여러 자화상 중 '가장 선명하게 그의 존재를 인식시킨다고 생각해' 고른 작품이다.

앤디 워홀의 작품 중에서는 생애 마지막 작품인, 강렬한 이미지의 '레인'을 선택했다. "색채들 간의 관계를 통해 차가우면서도 엄정한 레인의 정신 세계를 그려냈고," "보색 대비의 강한 차이가 어두운 배경에 묻힌 레인의 존재를 호명하는 것도 같다"는 글처럼 그림을 보면 레인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혁명'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책이 주는 또 하나의 재미는 '발견의 즐거움'이다. 아무래도 현대작가는 낯설기 마련인데 책을 통해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만나고, 그 작가의 다른 작품으로까지 관심이 확장되는 경험은 행복하다.

발행물 사스날의 '카파와 리타' (2011)가 그 중 하나다. "그저 흔한 일상 속 정경이지만 이런 장면을 이토록 매력적인 회화로 만드는 솜씨가 대단히 감각적이다"라고 설명한 그림은 흐트러진 침대 위에 누워있는 두 사



빈센트 반 고흐 '아름에서 그린 자화상' (1888년) (마음산책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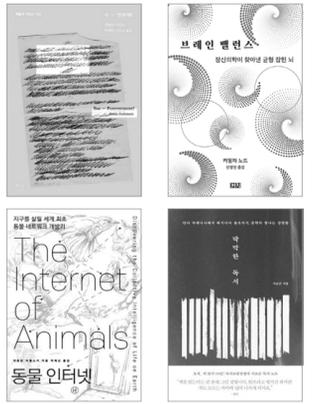
람을 포착하고 있다. "따분한 일상을 표상하는 데 집중하는 작가"라는 설명에 그의 또 다른 작품이 궁금해지는 것이다.

정물화의 매력을 알게 해준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의 '컵 속의 물과 장미' (1630년대)는 새롭게 발견한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든 그림이다. "적막한 공간에 단출하게 놓인 몇 가지 기물들이 이룬 무겁고 고요한 세계"를 펼쳐 놓은 작가는 "접시와 물컵, 꽃 한 송이만으로도 기품 있고 고혹적인 어느 순간을 멈춰놓았"고 그 분위기는 감상자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마지막 작품은 키키 스미스의 태피스트리 작품 '하늘' (2012)이다. 곁에 두고 한 점 한 점 감상하다 보면 자연스레 서양미술사의 흐름도 알게 된다. (마음산책·2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

새로 나온 책

▲수·영원해!=디킨슨이 수잔에게 보낸 시 가운데 77편을 골라 8개의 장으로 나눴다. 수잔에 대한 그리움부터 정념, 애뜻함, 찬사까지 다양한 마음이 담겨 있다. 그녀는 디킨슨에게 오랜 친구이자 오빠의 아내였으나, 관계성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이기도 했다. 두 사람을 표상하는 단어로 '퀴어'가 제시되곤 하나, 시편을 읽다 보면 그리 단순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느껴진다. 번역과 함께 원문인 영문 시를 함께 수록했다. <파시클·1만6700원>



▲브레인 밸런스=급변하는 환경과 자극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조절해 가는 뇌. '균형'을 잡은 뇌가 만일 건강한 뇌의 전형이라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신건강에 대해 기존의 통념을 뒤바꾸고 있는 최근 연구 성과들을 살펴본다. 플라세보와 노세보, 웰빙에 대한 기대와 그에 대한 학습, 전기적 감정과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생활양식까지 '정신건강' 자체와 '정신장애'의 변화사 전체를 망라한다. <까치·2만원>

▲동물 인터넷=자신들의 멸종을 초래한 인류는 비슷한 사례 없던 절멸의 위기 앞에서 있다. 기취위로부터 인류세적 관점, 생물 다양성의 위축 등 전 지구적인 생태학적 문제는 뜨거운 화두다. 이로 인해 아카루스 프로젝트 팀은 종래 동물 연구 관점을 바꿔 '동물 인터넷'이라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 기술은 위성을 접촉해 사물

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IOT(사물 인터넷)처럼 동물의 집단 지성을 데이터로 간주하면서 기후 변화를 대비한다. <휴머니스트·2만1000원>

▲막막한 독서=15년간 막막한 독서라는 책 모임을 이끌며, 1000회가 넘는 모임을 가져온 저자가 인문학 에세이를 펴냈다. 책을 꼭 읽어야만 하는가라는 근원적 질문부터 책 앞에 마주하는 의무감을 '인정'하자고 강조한다. 그런 뒤에야 강박에서 벗어나 의미 있고 자유로운 독서 경험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빠르게 내용을 습득하거나 면밀하게 정독하는 것만이 책 읽기의 전부가 아니라, 마치 '명대리' 독서하기를 권한다. <북루트·1만9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안녕! 작은 곰=내가 가진 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곰인형'의 하루. 울고 있는 꼬마 어린이를 보고 곰인형이 소원을 이뤄주고 싶다 생각하자, 뱃속에서 달콤한 마법 솜사탕이 만들어진다. 쓰레기장에서 눈을 뜬 버려진 곰인형이지만 타인에게 행복을 선사할수록 자기 자신도 행복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길벗어린이·1만5000원>

개한다. 단원별로 나뉜 성취 기준에 따라 운율, 비유, 성장, 갈등, 추론 등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바뀐 기준에 맞게 이를 재구성했다. <창비교육·전권 3만원>

▲국어 한 권 : 중1 문학 + 비문학=2025년부터 중학 국어가 전면 개정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럽다. 이에 대해 국어 교과서 집필진이 교과서 10종 수록작을 문학, 비문학으로 나눠 한 번에 소

▲한 컷씩 세계사=조선, 대한민국과 무관한 먼 나라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 다른 나라의 선거 제도나 테러, 폭동, 종교적 갈등 등이 우리나라에 밀접한 영향을 줬던 사례를 둘러본다. 종교갈등이나 인류 4대 문명사, 정치적 대립 및 문명의 진전 등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돌발상황을 대처하도록 돕는다. <풀빛·1만5000원>

영국 총리가 트럼프에게 선물한 전통 술잔 '퀘이크' 의미는?

위스키디아
김지호 지음



지난 2017년 1월 마·영 정상 회담 당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양옆에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영국 전통 술잔을 선물한다. '퀘이크' (Quaich·스코틀랜드 게이일로 컵을 의미) 라고 불리는 술잔은 중세부터 사랑, 우정, 평화의 상징이었다. 총리는 트럼프에게 '단순히 컵이 아닌 스코틀랜드의 오랜 전통과 유산'을 선물한 것이었다.

로그에서 '위스키의 기초 지식부터 역사, 문화, 브랜드 이야기 그리고 최신 흐름까지 최대한 쉽게 풀어내고자 했다'고 밝힌다.

저자는 크게 4개 파트로 나눠 스카치위스키 라벨 읽는 법과 위스키 분류법, 위스키 음용법, 도수의 또 다른 표현방식인 '프루프' (Proof)를 비롯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일본, 대만 등지 위스키 증류소에서 빚어내는 다양한 위스키 제품에 이르기까지 위스키의 모든 것을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위스키의 제조과정과 역사, 문화에 배어 들며 수 백년 전통을 잇고 있는 증류소에서 출시한 다양한 위스키에 관한 궁금증을 풀게 된다.

곡물과 물, 효모로만 제조하는 위스키. 곡물을 발효시켜 증류한 뒤 오크 통에 넣어 숙성시키는 위스키는 증류소 마다 고유의 풍미를 발산한다. 숙성 과정에서 자연 증발하는 술을 '천사들의 몫' (Angel's Share)이라고 한다. 저자는 1초에 8명씩 팔린다는 '조니 워커'와

피트 (Peat·泥炭) 특유 풍미가 있는 '라프 로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현장인 궁정동 안가 술상에 올려졌던 '시바스 리깅', 아일랜드인의 소주로 불리는 '제임스', 도리이 신지호와 타케츠투 마사타카의 손에서 탄생한 일본 위스키, 대만 살충제 회사가 설립한 카발란 증류소 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바닥에 있는 보리를 뒤집어주는 '몰트 맨 (Malt Man)'과 어깨가 원숭이처럼 굽은 직업병인 '몽키 숄더' (Monkey Shoulder), 오크 통을 굽는 '쿠퍼' (Cooper)와 '굴림' 통과로례 이야기는 새롭고 흥미롭다. MZ세대에게 인기를 끄는 하이블 역시 영국 '스카치 앤 소다'에서 유래해 미국을 거쳐 일본에서 꽃을 피우는 과정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위스키의 성지'로 불리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섬에 자리한 증류소를 직접 찾아가고, 빌리 워커와 베리 맥에퍼 등 유명 마스터 블렌더와 단독 인터뷰를 하는 저자의 열정이 빛난다. <비타북스·2만2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